

안테나



김동진 편집장



23대 임원진 새로운 출발 협회 위상 정립과 단합의 길 모색

대한양계협회(이하 협회)의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었다. 지난 20일 협회는 정기총회를 갖고 제 23대 회장에 단독 출마한 오세진 직무대행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위기에 처한 양계산업은 물론 협회를 다시 정상화시켜야 하는 큰 짐을 안고 출범하게 되었다.

1962년 (사)한국가금협회로 출범으로 창립된 양계협회는 60여년 동안 양계산업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현재의 대한민국 양계산업을 세계와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는 양계산업의 기초를 세우고, 1970년대는 양계기술을 보급하는데 주력하였으며, 1980년대는 계열화 등 산업구조의 기틀을 만들고, 1990년대는 자동화, 규모화가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제품의 다양화, 안전산물 생산, 친환경, 동물복지 등 소비자 중심의 양계 산업으로 면모를 갖추었다. 이런 세월을 거치면서 협회는 농가교육, 양계산물 홍보, 질병예방, 수출입, 정책, 박람회 등 산업발전 및 농가의 입장에 서서 많은 일들을 대변해 왔다.

양계산업은 산업의 발달로 1인당 연간 소비량이 닭고기 15kg, 계란 280개로 국민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가금단체 조직들은 서로의 단합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남의 탓을 하기 보다는 양계인들 스스로 만든 길이다. 1990년대 도계장들의 모임체인 한국계육협회(현 육계협회)가 분리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토종닭연합회(현 토종닭협회)가 협회에서 이탈하였으며, 최근에는 육용종계부화협회와 산란계협회가 분리독립을 선언했다. 산업이 분업화되고 업종별 특성화로 인한 분리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협회가 구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이번 새로운 임원진 구성을 계기로 다시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분위기 또한 커

지고 있다. 양계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단체는 60년 전통의 ‘대한양계협회’ 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는 없다. 전체 양계산업(종계업, 산란계업, 육계업)이 공존하고 있는 협회가 양계농가를 대변하는 대표 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임 임원진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여름철 계란 위생점검 강화

매년 살모넬라 검출건수 증가

최근 모 신문기사 제목에는 “달걀 만진 손, 안 씻었다간 큰일 납니다” 라는 기사가 소비자들을 자극했다.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을 맞아 살모넬라 안전관리를 위해 계란취급업체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섰고, 계란을 취급할 때 주의사항을 언급하는 내용이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식중독 문제는 계란산업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더할 것이 없다. 하지만 사실을 벗어난 자극적인 제목은 계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기사를 쓴 기자에게 항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일 단락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문제는 정부에서 PLS(농약잔류)는 물론 살모넬라 등 계란에 대한 위생점검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농가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계란의 위생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계란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계란 취급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살모넬라 검사 대상도 기존 1종(Enteritidis)에서 3종(Typhimurium, Thompson 2종 추가)으로 확대하고 시료도 기존 20개에서 100개로 하되, 기존 계란 내용물만 하던 것을 난각도 포함하기로 하였다. 만약 균이 검출시 신선란으로의 공급을 중단하고 가공용만으로 사용해야 한다.

최근 살모넬라균 식중독 발생건수는 2019년 18건에서 2020년 21건, 2021년 32건, 2022년 41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2년도 국내 산란계 농가 살모넬라 오염도는 약 20%, 식중독균은 약 5%(내용물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장내부 식용란선별포장업 60개소의 검사결과도 같은 비율로 나왔다. 특히, 노계(80주령 이상)에서 살모넬라균 오염율이 높고 물세척 계란보다 브러시 세척 계란의 오염율이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안전성 문제는 더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출하가 된 계란이라도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추적조사를 통해 해당 계란을 출하한 농장에도 출하정지 및 폐기처분 등의 조치가 내질 수 있는 만큼 계란위생에 더욱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양계**